

나주 청년 예술가 ‘젊은 모색 2025-빛나는 시작’

30일까지 회화·사진·애니메이션
나주 작은미술관·참새방앗간서
실험정신 돋보이는 작품 ‘눈길’
“지역 예술의 새로운 출발 모색”

모든 창작은 작고 소박한 출발에서 비롯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밝히는 예술의 빛이 담겨 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시선과 감각을 담아낸 기획전 ‘젊은 모색 2025 - 빛나는 시작’이 4일 개막해 오는 30일까지 나주정미소에 위치한 작은미술관과 참새방앗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나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 예술가 7인의 작품을 통해 지역과 예술, 청년의 삶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참여작가는 광영선, 권예솔, 이유빈, 장세현, 장유리, 정송희, 최찬 등이며 회화, 사진, 애니메이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동시대의 감정과 메시지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빛나는 시작’이라는 전시 제목은 무한한 가능성과 예술적 비전이 내재돼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발표를 넘어, 청년 예술의 현재를 성찰하고 나주 미술의 미래를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영선 작가는 변화하는 나주 원도심의 풍경을 흑백 사진으로 기록하며 그 안에 깃든 기억과 정취를 소환한다. 권예솔 작가는 선인장을 통해 고립과 회복이라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풀어낸다. 이유빈 작가는 섬이라는 이미지 안에 불안과 생존의 감정 흐름을 담고, 장세현 작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간과 기억의 서정을 표현한다.

장유리 작가는 영상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감정의 잔상과 회복의 서사를 전하며, 정송희 작가는 신체를 중심으로 한 감정의 생명력을 역동적으로 드러낸다. 최찬 작가는 자연과 도시 사이에서 감지되는 감각들을 회화로 표현하며 침과 치유의 순간을 포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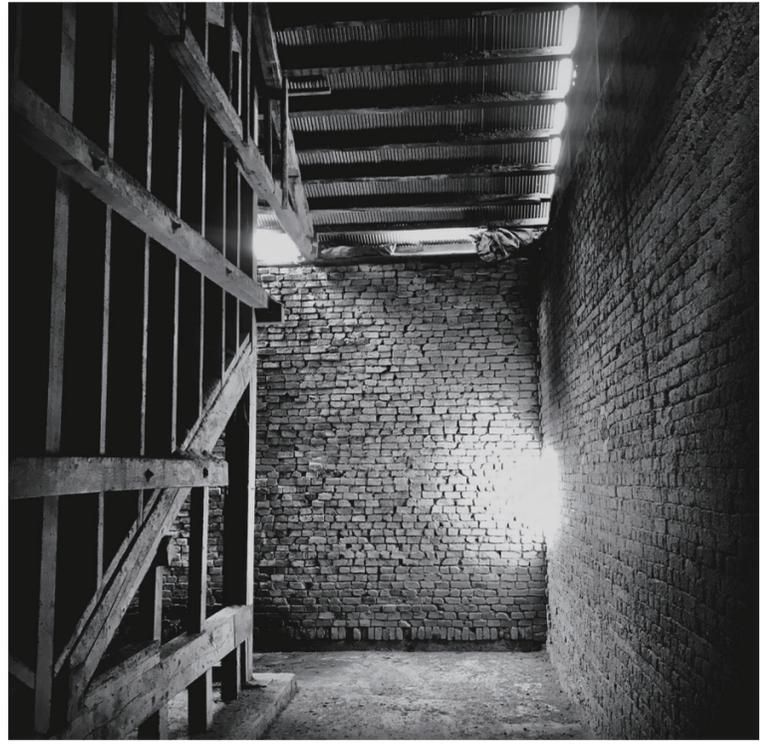
이처럼 전시장에서는 청년 작가들의 창

의성과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가득하다. 특히 나주라는 지역에 뿌리를 둔 예술이 가진 생명력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풍요로움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규 나주 작은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청년 작가들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감정, 기억과 치유를 아우르는 예술의 언어를 통해 나주 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빛나는 시작이 지역 예술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작은미술관은 나주시에 처음 마련된 미술관이다. 기존 나주정미소 4동을 활용해 ‘미술관이 있는 흔한 동네 풍경’이라는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된 후 활발히 전시를 개최하며 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영선 작 ‘머물’.

나주 작은미술관 제공

우주서 탐색한 사유의 시간... ‘별의 항해’

오혜성 개인전... 회화작 25점
내달 6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우주의 별빛을 매개로 인간 내면의 고뇌와 존재의 의미를 성찰해 온 청년작가 오혜성이 개인전 ‘별의 항해’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개최되며 관객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사유의 시간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오혜성 작가는 별을 향한 동경에서 출발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을 그린 회화 작품 25점을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인다.

별은 누군가에게는 소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히는 빛이다. 오 작가에게 별빛은 존재 이유이자 곧 존재 그 자체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의 별로 태어났지만, 때로는 빛을 잃은 채 어둠 속에 머무는 시간을 겪는다.

작가는 ‘빛을 잃은 별’이라는 상징을 통해 자아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내면을 비추고자 한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실, 슬픔, 분노, 증오 등의 감정을 ‘번뇌의 7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아 회복과 구원에 이르는 내적 여정을 은유적으로 풀어낸다.

국립광주과학관서 체험하는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오늘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현장 특별교육·체험활동 등 운영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지구를 위한 한걸음, 과학으로 함께해요’를 주제로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4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주요 행사로는 이상 기후 현상 등을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는 △환경 사진전 △지구본 위의 과학(S.O.S) 환경해설 △환경 애니메이션 상영 △환경사랑 부채만들기 △지구촌 환경 생태 여행 특별교육 등이 현장에



오혜성 작 ‘성간물질’.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 중 ‘성간물질’은 질푸른 우주 공간 속에 별빛이 흩뿌려진 장면을 캔버스 위에 구현하며, 실제 성운이나 별무리를 연상케 한다.

물감 위에 크리스탈 파우더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혼합해 제작된 이 작품은 단순한 이미지 재현을 넘어, 빛 자체를 물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작가의 시도를 보여준다.

오 작가는 “지혜로운 별이라는 뜻이 지닌 ‘혜성(彗星)’은 어둠을 가르며 길을 비추는 존재다. 별빛은 단지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존재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 역시 각자의 별을 되찾고, 잊고 있던 자신만의 빛을 다시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서 운영된다.

이 외에도 환경의 날의 의미와 실천 방안 등을 담은 환경의 날 카드뉴스와 나만의 환경보호 방법을 공유하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환경보호 댓글 이벤트를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당일 폐건 전지를 10개 이상 지참하면 우주과학특별전 ‘지구너머의 세계’에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매주 토요일 ‘당신곁에’ 펼쳐지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너의 하늘을 보아’ 주제로
5개 구 야외거점공연장서
국악·댄스·팝페라 등 다채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당신곁에’가 6월 한 달간 ‘너의 하늘을 보아’를 주제로 시민 곁을 찾아가는다. 박노해 시인의 시구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공연은, 상반기 동안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전할 예정이다.

4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달 총 11회, 8개 장르의 공연이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전통연희, 아카펠라, 스트릿댄스, 발레, 팝페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공연에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팀이 참여한다.

먼저 7일 동구 ACC상상마당에서는 탈춤과 밴드 음악을 접목한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와 다양한 실용무용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성곡문화재단’의 ‘댄스 플래시’가 이어진다. 같은날 광산구 쌍암공원에서는 남성 중창단 ‘포르투냐’가 히로애락을 노래하는 무대를 펼친다.

이어 21일에는 동구와 남구에서 각각 아카펠라 팀 ‘나린’과 색소폰 연주팀 ‘JS 엔터테인먼트’가 공연을 선보이며, 28일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국내 대표 스트릿댄스팀 ‘갬블러크루’가 시민 참여형 공

연을 진행한다.

광주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과 시립발레단의 야외 공연도 예정돼 있다. 시립창극단은 7일과 14일, 시립발레단은 14일, 21일, 28일 다양한 레퍼토리로 시민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6월 이후 7-8월 하계 휴식기를 거친 뒤 9월부터 3개월간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리뷰 이벤트 ‘당신 픽(PICK)’도 진행 중이다. 공연 정보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j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순천만의 밤을 더 아름답게” 국내 최대 ‘캔들라이트 콘서트’ 개최

내일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서
자연·음악 어우른 특별한 무대
비발디·지브리 주제곡 등 다채

오는 6일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펼쳐진다.

글로벌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피버(Fever)’가 순천시와 협력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클래식 음악과 자연, 1만5000개 이상의 촛불이 어우러진 특별한 음악 축제를 시민들에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캔들라이트 콘서트’는 클래식 음악을 더욱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피버가 직접 기획·제작한 글로벌 공연 시리즈다.

이번 순천 공연은 ‘별가든 밤 - 치유와 위로’를 주제로 사회적 어려움 속 시민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무대는 순천만국가정원의 대표 명소인 봉화언덕과 호수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1만5000개 이상의 촛불이 현장을 수놓을 예정으로 이는 국내에서 열린 역대 캔들라이트 공연 중 최대 규모다.

연주곡은 비발디, 쇼팽 등 고전 클래식은 물론, 영화음악과 스튜디오 지브리의 인기 OST까지 포함돼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은 사전 예매 없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입장료는 별도). 별도 좌석은 마련되지 않으며, 관람객들은 잔디 위에 돛자리를 펴고 자유롭게 앉아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 시간도 공연 당일에는 오후 10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박찬 기자

↓ 지난해 통영 강구안에서 열린 캔들라이트 콘서트 피버 제공

